

지구촌 보건복지 포럼
이미경 이사장 강연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보건 ODA 방향

2020. 7. 17.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 이사장**

목 차

1. 시작하는 말	1
2. SDG 3 달성을 위한 KOICA 보건의료 사업	5
3.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ABC 프로그램	10
4. 맺음말	17
참고. KOICA 기관개요 등	18

1. 시작하는 말

지구촌 보건복지포럼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넘게 지구촌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약품과 의료봉사 등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과 사단법인 지구촌 보건복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를 여전히 정치인 이미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 이사장으로서 여러분께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보건ODA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섰습니다.

먼저 KOIC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KOICA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꾸준히 원조규모를 증대하는 한편, 우리가 보유한 중요한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의 발전과 인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하여 이러한 원조 즉 ODA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벌써 30년이 됩니다. 즉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지 30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개발목표 SDG

“그 누구도 소외 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지난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천명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방향입니다. KOICA는 이러한 세계 개발협력 흐름에 맞춰 기관의 미션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설정하고,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지구 환경(Planet)¹⁾이라는 4P를 기관의 주요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P는 SDG의 정신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DG는 그 이전의 개발목표였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개발목표)와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MDG가 ‘절대빈곤’해소 및 교육과 보건 등 사회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17개 의제와 169개 대상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SDG는 환경, 인권 및 평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2030년까지 사회 변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향적 지원을 강조하는 MDG와는 달리 SDG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연대로 초국경시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뉴노멀 그리고 SDG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1) 국제사회는 UN기후변화협약 합의를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을 통해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혁명시대를 기준으로 2도 상승 이내로 억제할 것을 합의

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post-코로나’, ‘뉴노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뉴노멀’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돌아봅시다. 코로나19 이전시기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절대적인 빈곤은 개선되었지만, 반복되는 환경 파괴²⁾, 깊어지는 불평등, 만연한 인권침해 등 한계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뉴노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15년 UN이 제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는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생태계 보전(SDG 15), △빈곤퇴치(SDG 1), △불평등감소(SDG 10) 등 코로나19로 전면애 드러난 과제들의 해결노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SDG 달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연대와 협력’ 즉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SDG 17)만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원칙임을 코로나19는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K-방역, 국격 상승 그리고 민간과의 상생번영

KOICA가 추구하는 SDG라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이행하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 국격과 국력을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연대와 협

2) 무분별한 개발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세계로 침투하여 감염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은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 대응하는 일이기도 함

력, 상호 신뢰와 포용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K-방역에 대해 세계 각국은 높게 평가하고, 앞 다퉈 자국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OICA는 이미 진단키트, 마스크 등 의료장비는 물론이고 드라이브 스루 와 같은 세계적으로 호평 받는 코로나19 검사시스템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웹세미나 방식을 통해 K-방역의 노하우 지식을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여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³⁾를 크게 증가 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 감염병의 특성 상 글로벌 공조는 필수적이며, 보건시스템이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통한 대응 및 회복력 지원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빈곤, 사회 불평등, 보건 이슈와 같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가 협업하여야 합니다. KOICA는 여러분과 함께 연대와 신뢰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3) 2019 소프트파워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9위로 일본(8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역대 최고의 순위를 달성함. 프랑스(1위), 영국(2위), 독일(3위), 스웨덴(4위)등 ODA 모범국가들이 상위권임. 하드파워 강대국인 미국(5위), 중국(27위), 러시아(30위) 등은 다소 후순위임.

2. SDG 3 달성을 위한 KOICA 보건의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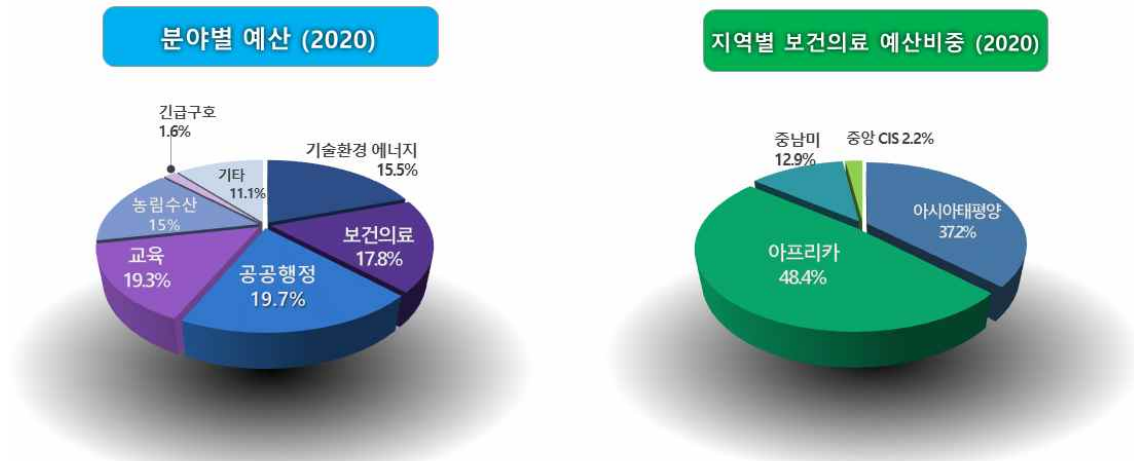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염병의 창궐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에볼라가 있었습니다. 다만, 세계는 이전의 감염병에 국지적으로만 대응하였습니다. 금번의 전세계적인 감염병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국제공조 강화, 전세계적인 보건체계 강화 및 보편적 보건권 보장은 미래 세대의 복원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현재 감염병이, 단순히 감염병 자체의 보건의료 위기를 뛰어넘어 국가의 안보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SDG3 번에 해당하는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달성 지원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필수적인 우리 삶의 각 영역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이에 따라 KOICA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세우고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 할 수 있도록 5개년(2016-2020) 보건분야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사업은 ①식수위생 개선 및 포괄적 영양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②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보건서비스 제공, ③질병예방 및 치료서비스 제공의 3대 전략목표 내 하나를 이루고 각 세부분야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볼라를 겪으면서 국가안보 및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의 두 영역이 교차하는 글로벌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감염병 및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응 이니셔티브가 2014년에 출범하였고, KOICA는 동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2015년 Safe Life for All 전략을 수립하여 예방 및 탐지 관련 3개 목표(예방접종, 국가실험실체계구축, 보건안보인력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KOICA 분야별 예산 및 지역별 보건의료 예산비중(2020년도) >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분야 사업은 2020년 KOICA 전체 국별협력 사업의 17.8%을 차지하며, 약 733억원 규모로, 교육분야 사업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비중으로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CIS 순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OICA는 지난 10년(2010~2019)간 약 6억불 규모의 총 103건의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여 총 134개의 병원·보건소 등 보건의료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KOICA가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지원해온 보건의료 사업은 개도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금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시에도 활용하는 등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MDGs 때부터 이어온 모자보건 사업의 경우, 건강한 산모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성사망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보건 의료 인프라, △병원 및 시설 개선, △보건 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나와 탄자니아에서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산모 전·후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산모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보건 의료 인력 및 개선된 의료 시설은 감염병 등 보건 및 재난 위기 시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KOICA는 WHO, UNICEF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위생 인식 및 행태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설사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 발생률은 낮추고, 식수를 얻기 위해서 학교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KOICA는 이러한 위생 시설 개선 및 인식 개선 사업은 금번 코로나19 대응 시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KOICA는 국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혁신적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벤처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KOICA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물 정수, 말라리아 퇴치 현장 진단 시스템 개발, 폐주사 바늘 재사용 방지를 통한 2차 감염 예방, 결핵 퇴치를 위한 분자 진단 키트 보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KOICA는 베트남에서의 씨젠의 결핵 및 폐렴 진단 개발, 캄보디아에서의 노을의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 키트 보급, 코트디부아

르에서의 신평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진출을 측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씩 부과하여 마련된 재원인 국제질병퇴치기금(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으로 KOICA는 IVI, Gavi, Global Fund, CEPI 등과 같은 국제보건기구·연구소·기금 등과 협업하여 소외열대질환, 콜레라, 말라리아 등 퇴치사업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정부는 동 기금을 통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의 백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질병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이카는 타공역국과도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에 대한 초국경적·선제적 대응 필요에 따라 미국 CDC와 협력하여 ‘감염병 프로그램’을 캄보디아와 가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실험실 안전·보안체계 등 질 개선, △역학조사관 양성을 지원하는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역학조사관과 역량이 강화된 실험실은 에볼라 및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WHO의 세계보건규약 기준에 따라 인구 20만명당 1명의 중급/고급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며, 가나는 약 15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KOICA 사업을 통해 15명이 기 양성되었으며, 23년까지 60명이 추가로 양성될 예정으로 가나 전체 목표 인원의 절반 이상이 KOICA 사업을 통해 양성될 예정입니다.

KOICA는 앞으로 기존의 보건분야 전략을 확대 강화하여 협력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

내에서도 체감하듯, 감염병은 보건분야 이외의 분야로도 파급효과가 크므로 생계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보건의료 사업방향 및 이에 따른 코이카의 대응에 대해서는 참고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ABC 프로그램

KOICA는 개발협력기관으로서 글로벌 감염병 위기대응과 인간안보 확립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여 3월말 비상경영전략 TF를 발족하고 4월 13일 ABC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상께서도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 취임 3주년 기념사, 73차 WHO 보건총회 초청연설 등 여러 계기 한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언급을 지속했던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협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의 원칙으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코이카의 코로나 19 대응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A, B, C 세 가지 관점의 활동들을 통해 개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간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G20 공동선언에서 강조되었던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그리고 한국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입니다.

개도국의 특성 상 보건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곧 취약층의 생계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 보건적 측면의 감염병 대응이 생존과 생계권을 보호하는 회복력 구축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Save Lives, Safe Livelihoods 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응(Response) 단기 프로그램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복원력(Resilience) 중장기 프로그램을 A,B,C 각 요소별로 구분하였습니다.

A(Action on Fragility)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그럼 A(Action on Fragility)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에 대한 활동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감염병 대응의 기본인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기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보급에 연관된 글로벌 보건 기구들과의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분배를 위한 선구매확약메커니즘⁴⁾ 출범을 지원(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임상실험·백신제조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투자 지원(전염병대비 혁신연합/CEPI),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및 개발 지원(국제의약품 구매기구/Unitaid),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 및 개도국 도입 지원(글로벌펀드)을 진행중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요인 중 하나인 진단키트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가 폭발적인 가운데, 우리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는 사안별로 코이카는 국산 진단키트, K-마스크 등 인도적 지원물품을 개도국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이카가 지난 30년 가까이 다양한 보건 분야 사업을 추진해 왔던 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케냐, 가나, 콜롬

4) 선구매확약메커니즘(Advance Market Commitment, AMC) : 백신의 장기적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대규모 선구매를 확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단가를 절감

비아, 페루 등에서 코이카가 지원해 준 병원 시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해당국가의 코로나 19 지정병원으로 활용되거나, 격리용 임시병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⁵⁾. 코로나 19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케냐 키텐젤라 주립병원은 96년 건립 시에는 1단계 진료소였으나 코이카 지원을 통해 2010년 2단계 보건소로 승격되고, 이후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17년도에는 4등급 종합병원이 되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던 고려대 최재욱 교수님의 우즈베키스탄 국가 자문관 활동 뒤에도 코이카가 있습니다.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에 2009년부터 전염성 질병관리 역량강화사업을 2차에 걸쳐 2019년까지 지속 추진해 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코이카가 금번 파견을 지원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긴급 자문의 결과로 우즈베크 정부는 방역관리를 통합한 특별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기준을 개정, 신규지침을 마련하는 등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최고 160여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자문 기간 내 30여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코로나 19 피해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넘어 식량안보, 생계, 교육 등의 위기로 닥치며,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개도국 취약계층 대상으로 글로벌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이카는 기존 사업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급대응 수요 증대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개도국 현지지원방식

5)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케냐, 가나, 콜롬비아, 페루 등 10개국에 KOICA가 기 지원한 병원 15여곳은 코로나19 지정병원 또는 격리용 임시병동으로 활용되고 있음.

을 취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현지에서 최우수 개발협력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파나이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쌀을 도시 빈민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현지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테말라에서는 코로나 19 대응 최일선 업무를 수행하나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경찰들에게 우리 교민 섬유기업의 현지 협력업체가 생산한 마스크를 코이카 연수생 동창회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국가간 이동 및 현지 활동의 엄격한 제약 상황 속에서 개도국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현지 NGO 시민사회 및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지역주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고, 직접적이며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는 적극적인 예산전용을 감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유연하게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는 확산 추세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코이카는 보건시스템의 붕괴 없이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각국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압시설을 포함한 모듈병동이나 선별진료시설 요소 중 하나인 한국형 워크스루, 대면/비대면 전문가 자문 외 ICT기술을 활용한 방역 활동 지원, 현지 커뮤니티 기반의 주민 밀착형 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을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B(Building Capacity) 개도국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다음으로는 B(Building Capacity) 트랙의 개도국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역사가 깊은 만큼 국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IHR이라는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각국들은 통합적인 관리예방활동 및 제도구축을 실행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시 질병감시를 통한 조기탐지를 통해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코이카는 이런 맥락 하, 개도국이 적정한 회복탄력성과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활동들 보다는 현재 코로나 상황 하 추진중인 연관 활동들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사무소는 공공시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는 SNS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는 현지 기업이나 NGO, 코이카 활동인력등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피지**에서는 코이카 봉사단원의 재능기부로 현지문화에 적합하게 이미지 작업을 하여 감염병예방 행동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현지 보건부, WHO,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전국 보건시설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조기 탐지를 위해서는 실험실 역량과 역학조사관 양성 등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코이카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과 연계한 정부 공약에 따라 15년부터 1억불 규모의 연계사업으로 개도국의

실험실역량강화와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그 성과로 양성된 인력이 **캄보디아** 가나와 같은 국가에서 코로나 대응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견 자문에는 제약이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 페루 등 일부 국가의 수요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조정을 통해 일부 요소를 실험 및 진단 역량 강화로 기획 중이기도합니다.

C(Comprehensive Cooperation) 한국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

세 번째 프로그램 요소는 C(Comprehensive Cooperation)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입니다.

한국경험을 공유하는 부분 관련, 범정부적으로 국제방역협력 TF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9차에 걸친 시리즈 **웹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코이카도 이의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코이카는 아울러 코로나 19 대응 관련 개도국과의 경험 공유를 위해 5개의 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지난 4월 29일에 코로나 19 **정보허브**를 오픈하고, 개도국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웹세미나 시리즈를 포함하여 국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만든 양질의 정보들에 대해서도 링크를 업로드 하여 한국 경험 공유가 더 널리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연대 관점의 활동들로, 개도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스크를 직접 스스로 제작하는 방법을 지원한다거나, 여전히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협력의사가 현지 보건인력에게 방역 노

하우를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활동을 포함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에 못가는 개도국 청소년들에게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의 이러닝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IBS 포용적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크메르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은 모바일 앱으로 제작되어 접근성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는 국제혁신기술 플랫폼인 GIE를 활용하여 우리 우수 **K-방역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식약처 인증을 받은 국내기업 정보를 등록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기관인 와디즈와 협업하여 우리 기업들의 K방역 관련 해외진출을 돕는 협력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4. 맺음말

여러분, 코로나19는 광범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광범위하고 글로벌 차원이어야 합니다.

1차, 2차대전 이후에 국제연맹과 UN이 만들어졌고 오일쇼크 (1973년) 금융위기(2008년) 이후에 G7, G20이 만들어졌듯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뉴노멀 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편될 세계에서 차지할 한국의 위상은 지금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을 더욱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졌을 △빈곤 △생계 △교육 △보건 문제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동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큰 불을 끈 뒤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위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이제 묻어둡시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입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선도할 분야가 무엇일지, 어떻게 글로벌 공조는 가능할지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설립 목적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실현 및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국제개발협력 추진 (1991.4월 설립)

□ 미션·비전·핵심가치

- 미션 :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 비전 :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 핵심가치 :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 주요 사업

순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국별협력사업	협력대상국의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물적·인적 협력수단을 패키지로 하여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
2	해외봉사단파견 및 글로벌인재양성사업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청년인재 및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
3	글로벌연수사업	개도국 주요인사(정책입안자, 공무원, 기술인력, 교사 등)를 대상으로 한국 초청연수 실시, 개인·조직·제도적 역량강화 및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사업
4	시민사회협력사업	시민단체, NGO, 대학 등 시민사회 부문과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대상국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사업
5	혁신적개발협력사업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혁신적 기술, 포용적 비즈니스,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6	국제기구협력사업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양자사업을 보완하고 범지구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7	인도적지원사업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 세계의 재난상황에 대해 구호, 재난예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8	국제질병퇴치기금 (정부위탁사업)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씩 부과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퇴치를 지원하는 사업

□ 조직 현황

○ 본 부 ▶ 이사장, 감사(비상근), 4본부(이사), 26실, 1원, 3센터

사회적가치경영 본부	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경영실, 인재경영실, 예산기획실, 운영지원실, 재무회계실, 정보화운영실, 조달실, 홍보실, 국민소통센터
사업전략아시아 본부	사업전략기획실, 동남아시아1실, 동남아시아2실, 서남아태평양실, 기후감영병위기대응실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본부	동아프리카실, 서아프리카실, 중남미실, 중동중앙아실, 연수사업실, ODA연구정보센터
글로벌파트너십 본부	글로벌인재양성총괄실, 글로벌인재운영실, 글로벌인재교육원, 혁신사업실, 시민사회협력실,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이사장 직속 및 기타	평가실, 글로벌안전센터, 감사실

○ 해외사무소 ▶ 44개국 45개 사무소 (주재원 3개소 OECD대표부, UN대표부, 제네바대표부 별도)

아시아(14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아프리카(16국)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DR콩고
중남미(8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동·중앙아(6국)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팔레스타인

□ 임직원현황 (2020. 6.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임원	일반직
직제정원	442	5*	437
현 원	412	5	407
- 본 부	292	5	287
- 사무소	120	-	120

*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감사(비상임) 1명은 미포함

* 공무원(무기계약직)은 별도 정원으로 정원 133명 중 현원 116명(해외근무 5명)

□ 2020년 예산 : 8,883.7억원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4% 감소)

1

개요

- (배경) 정부의 Building TRUST 개발협력구상의 구체 이행을 위해 KOICA 코로나19 대응 ABC* 프로그램을 발족

* 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 (개요) 단기 대응(2020-2021), 중기적 회복력 강화(2022-2024)로 구분하고, 3대 주요 추진방향으로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한국 경험활용 글로벌연대 강화를 설정

< ABC 프로그램 3대 주요 추진방향 >

	Response (2020-2021)	Resilience (2022-2024)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Action on Fragility)	진단키트 지원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취약계층 인도적 수요 긴급지원	진단기술 자체역량 확보 지원 치료제·백신 공급 지원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
개도국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Building Capacity)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 조기탐지 역량강화 감염병 신속대응 기반 조성	감염병 예방사업 형성기확추진 감염병 탐지사업 형성기확추진 감염병 대응사업 형성기확추진
한국 경험활용 글로벌연대 강화 (Comprehensive Cooperation)	국내 감염병 대응 경험 연구 코로나 극복 위한 세계시민연대 강화 국내 혁신기술 발굴 및 확산	R&D 융합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세계시민연대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 국내 혁신기술 활용 개도국 지원

- (지원 계획) 총 412건 (완료(90건), 진행중(128건), 검토중(194건))
- 아시아 25%, 아프리카 29%, 중남미 10%, 중동CIS 12%, 다지역 24%(규모 기준)
 - 인도적지원 보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KOICA 출연금 활용 지원
 - 보건방역, 사회·경제적 영향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

< ABC 프로그램 추진현황 >

구분	코로나19 대응 사업전략 (ABC프로그램) 18대 과제	추진현황(완료/계획) (2020.7.1. 기준)
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별협력사업 연계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별협력사업·사후지원의 계속사업 집행계획 변경 및 신규 수요조사 통해 지원 중(96건) 등 중점방역지원국·지역협의체 회원국 대상 패키지형 사업지원(3,000만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신남방), 우즈베키스탄(신북방), 에티오피아(아프리카), 콜롬비아(중남미) 및 지역협의체(ASEAN, 아프리카질병통제센터(AU 산하 아프리카 CDC) 회원국 (대표 사례) 동티모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위생시설 지원, 네팔·필리핀 봉제교육을 통한 면마스크 제작, 필리핀 농촌종합개발사업 연계 미국 현물 지원
시민 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역사회 기반 감염병 대응력 강화 지역사회 기반 감염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개도국 사회적기업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위생 용품 지원, 예방수칙 및 감염병 대응 인식제고,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등 27개국 51건 진행중 (대표 사례) 파라과이 교육부 협력 교육콘텐츠 송출 및 워크북 제작(굿네이버스), 라오스 지역병원 및 보건소 인력대상 감염병 역량강화 교육, 이동진료서비스 등 제공(세이브더칠드런), 탄자니아 코로나19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방역물품 지원(메디피스)
글로벌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인재 E-volunteering 봉사단 활동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지원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캄보디아 시범실시 중, ▲단원 보건 생활수칙 현지언어로 동영상 제작 ▲봉사단 활동 지역 대상 취약계층 긴급지원(24개국/113만불), ▲글로벌연대 캠페인 진행중(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생 동창회 연계 긴급지원 언택트방식 코로나19진단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생 동창회 연계 긴급지원(59국/80만불) 연수 심화교육 일환 '코로나19 진단키트 활용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역량강화' 과정 온라인교육콘텐츠 준비 중
혁신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기술 활용 교육보건서비스 지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혁신기술 발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기술 활용 교육·보건 사업 지원, ▲GIE 플랫폼 활용 해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식약처 인증 받은 국내기업 정보 등록 완료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 협업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공모계획 수립중(KCOC 협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대응 한국사례연구 코로나19대응 온라인 컨설팅/지식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건의 연구 완료 예정(7월중) 지식허브 사이트 운영, FAQ 영상(20개 주제) 제작중(www.koica.go.kr/covid19/index.do)
ODA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시민교육 기반 글로벌 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공모전(기후변화, 전염병, 상호연계 등) 진행중(심사중), ▲온라인 과정 개발(SDGs 완료, 보건과 개발(감염병) 7월중)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호(진단키트, 현금지원, 국제기구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공약 국가 대상 인도적지원 집행중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PI, Gavi 등 국제기구 코로나19 대응 공조

□ (현지 맞춤형 지원) 현지 자원 및 인력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원

○ (동티모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위생시설 구축



- 딜리 시내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세면대 30개 설치(코이가 10개, EU 10개, USAID 5개, 하이네칸 5개/세면대 1개당 1.5리터 페트병 약 900~1,400개가 사용)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 제작, 인쇄, 배포를 통해 커뮤니티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 중앙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지원

○ (네팔, 필리핀) 봉제교육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제작



-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14-'22/800만불)을 통해 ▲ 긴급식량쌀, 기름, 설탕 등) 제공, ▲ '청년 및 여성 고용 프로젝트' 봉제교육으로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제작(14,000장) 지원
- 필리핀 한국봉제업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한 마스크 제작

지원 협의중

- (필리핀) 필리핀 파나이 섬 고지대 농촌종합개발 사업('15-'19/650만불)에서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농민협동조합, 가공공장, 유통망 등)하여 20만불 상당의 미곡 현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봉쇄로 일자리 상실한 도시빈민 생계, 농민 소득 창출 지원(현지에서 수매-가공-포장-운송)

□ (K-방역 경험공유) 현지인력 대상 예방교육, 정책컨설팅을 위한 자문단 파견, 기술자문을 위한 웹세미나 및 온라인 역량강화 과정 실시

- (네팔) 코이가 파견 글로벌협력의사(한-네팔 친선병원 파견) 현지어로 네팔 감염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 동영상 제작, 네팔NGO 협의회 및 코이가 민관협력 현지 교육생 대상 코로나19 예방교육 실시

- (페루, DR콩고) 주요 병원 의료진 대상으로 현지 맞춤형 코로나19 경험

공유 웹세미나 개최(순천향대병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

- **(우즈베키스탄) 전염성 질병관리 역량강화 사업('09-'12, '13-'19) 후속조치로 분야 전문가(고려대 최재욱 교수) 파견을 통해 감염병 현황 및 정부의 대응정책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실시**
 - **주요 성과 :** ▲ 우즈베크 격리관련 통합기구 신설 ▲ 격리 및 관리지침 출판 및 자가 격리지침 개정 ▲ 수입의료품 관련 절차 간소화 ▲ 증례기록지 등 신규 의료양식 도입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최신지침의 국별특성에 맞는 수정 도입 추진

- **(다국가) △우리정부 진단키트 지원국 등 대상으로 진단키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한 개발도상국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진단역량 강화, △협력국 수요 맞춤형 FAQ 동영상 제작, △COVID-19 대응 체계 분석과 개발협력 사업에의 적용 모색을 위해 5개 주제 연구 진행, △범정부 차원의 주제별 경험공유 웹세미나 실시 지원**

□ **(K-브랜드 혁신제품)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을 위한 워크스루 진단부스 지원 추진중(8월중), ▲구급차 음압개리어 등 코로나19 대응 시 활용·검증된 우리나라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제품 지원 검토중**

- **코로나19 대응 병원·격리시설로 지정되어 활용중인 KOICA 지원 10개국* 15개 병원·보건시설 중심으로 지원**

*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케냐, 가나, 콜롬비아, 페루

□ **(국제사회 대응 공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전염성대비혁신연합(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노력에 공조**

-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분배를 위한 선구매확약메커니즘* 출범 지원(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임상실험·백신제조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투자 지원(전염성대비혁신연합/CEPI),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및 개발 지원(국제약품구매기구/Unitaid),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 및 개도국 도입 지원(글로벌펀드) 등**

※ 선구매확약메커니즘(Advance Market Commitment, AMC) : 백신의 장기적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대규모 선구매를 확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단가를 절감

구분	Before- 코로나19	Post- 코로나19	KOICA ODA 사업 대응
국제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위기를 개도국 문제로만 인식하여 접근 -미국 및 EU 등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원 예)에볼라의 경우 서아프리카의 보건 위기로만 프레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지구적 위기로 개발협력분야 판도 변화 인식 ○양·다자(소다자) 등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적 글로벌 방역체계 구축하여 공동 협력 방안 모색 -G20, ASEAN+3, MIKTA, 한중일 협의회 등으로 공동 협력 방안 모색 -UNICEF, WHO, CEPI 글로벌 펀드 등 예산의 10% 이상을 코로나 대응으로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조를 통한 인도 지원 강화 -WHO, GISA, 글로벌 펀드를 통한 자원 확대 -코로나 대응 예산재 배치 및 추가 투입 ○ODA와 민관협력 강화 -국내 보건의료 산업 진출 교두보
다분야 사업 필요성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질병 중심으로, 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만 인식, 자국 중심 대응 -특정 질병 중심 사업 지원 형태 -보건분야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 -의료적 관점의 상명하달식 서비스 메시지 예)에볼라의 경우, 에볼라 사업을 위한 별도 시스템이 존재하고 다른 보건이슈는 대응 하지 않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넘어 식량 안보, 생계, 교육 등 총체적 접근이 더욱 부각됨 -방역 중심의 보건협력사업을 넘어 기추진 중인 경제·사회적 측면의 ODA 사업 추진 개도국의 통합적 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 -다분야/다영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사업 유형 실시 예) 생계지원-의료서비스-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는 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영양, 농림수산, 기후변화 등 다분야적 접근을 통해 패키지화 하여 사업 기획 추진 중 예)청소년 교육 및 보건 증진사업, 농촌개발 시범마을 사업, 취약계층 식수 위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서비스 전달 체계 (방법) 리노베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중심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대면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공공장소를 활용한 집체교육 ○가구방문을 통한 대면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시설(병원)내 교차 감염 위험 상승에 따른 기초보건서비스 제공 어려움 발생에 따라 대안적 서비스 딜리버리 방법(언택트, 텔레메디신 등) 활용 필요 ○최소단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방역 및 서비스 제공 형식으로 변경필요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근린 시설의 보건의료시설화(생활건강센터, 보건지소등) ○ICT를 활용한 서비스 리노베이션 -감시체계에서의 데이터 활용, 진단, 대국민 메시지 전달 등 ICT 활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는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 전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요원 역량강화 중점 지원

구분	Before-코로나19	Post-코로나19	KOICA ODA 사업 대응
보건의료시스템의 총체적 접근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부 중심에 따른 제한적 대응 ○특정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단편적 프로젝트 중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정부적 협업 필요성 다대 -주요 대응 플랫폼 조직 · 중앙-지역 연계를 통한 위기 대응 구조강화 ○글로벌 감시체계 내 수원국가거버넌스 구조 적극 활용 ·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통합적 강화 지원 필요(거버넌스, 재정, 인력, 인프라 등) ○로드맵에 따른 긴급지원에서부터 중장기 포괄적 지원 형식의 프로그램 사업 지향 ○보건의료시스템내 자원 재편재(보건의료 인력/ 기자재/시설 등 재 배치)하여 필수 기본 서비스 사업의 지속 수행 필요 ○ 보건의료전문인력의 안전성 문제 발생 -보건의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우선적 보호 필요성 대두 -지역사회보건의료 보조인력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병원/환자 관련 정보공개 투명성 관련하여 의료윤리와 개인정보공개 관련한 우선순위 충돌 대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는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기본으로 정책/제도/시설 강화등 지원 사업 연계 -‘코이카’가 구축한 개도국 의료시설, ‘코로나 19 대응병원’ 지정 ·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케냐, 가나, 콜롬비아, 페루 등 9개국 13개 병원이다.